



제 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첫 주말 풍경

# 혼자 또는 같이... 현대미술 흐름 즐기려는 관람객들 발길

### '판소리, 모두의 울림' 3개 섹션 31개 파빌리온 관람객 맞이 한창 '소리숲' 양림동 일대 전시도 인기 관람후 광주문화 즐기는 외국인도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7일 개막과 함께 첫 주말을 맞았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본전시관이 열리는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는 다양한 현대미술을 즐기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현대미술의 흐름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개막 첫날인데다 첫 주말인 터라 전시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 친구들과 전시장을 찾은 청소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한 관람을 마친 외국인 관람객들은 광장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광주의 문화를 즐겼다. 작품 해설이 담긴 오디오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내려 받아 나홀로 전시를 관람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번 주제 '판소리, 모두의 울림'은 전한의 시대를 맞은 동시대 공간에 초점을 맞췄다. 소리를 통해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한 담론을 확장하려는 의도다. 환경 파괴를 비롯해 기후 변화, 거주 위기 등에 봉착한 지구의 공간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정착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탐구한다. 한편으로 관람객들에게는 감독과 작가들이 던지는 공간에 대한 의미를 사유하게 한다.

니콜라 부리오 감독에 따르면 전시 제목은 한국 전통음악 장르인 '판소리'에 착안해 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을 초점화한 것이다. 창자와 고수 등이 판소리마당을 매개로 각각의 존재들인 관객과 자연, 환경 등을 주제로 불려냈다.

비엔날레 전시관은 모두 5개 전시실을 3개 섹션



제15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후 첫 주말인 지난 7일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는 다양한 연령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아 세계적인 미술축제를 즐겼다.

으로 구성했다.

먼저 제1, 제2전시실의 주제는 '부딪침 소리'. 피드백 효과를 다룬 곳으로 모든 것이 인접하고 전염되는 공간을 상징한다. 사람 간, 종간 관계가 고밀도화되는 상황에서 밀도 높은 공간을 음성 이미지로 보여주려는 의도다.

관객들은 벨기에 출신 작가 피터 부겐후트의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제목은 티터러 브뤼헬 더 아우더의 작품에서 차용했다. 부뤼헬의 작품이 잘못된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반해 부겐후트의 조각은 존재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부각한다. 작품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사회는 노화와 쇠락 그리고 생장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듯하다.

비디오와 회화 설치, 사진 등 다중 매체를 넘나들며 작업을 해온 에디오피아 출신 웬디메겐 베레데

의 작품은 인상적이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다. 3000여 명이 넘는 에디오피아 열사들의 초상화를 만든 비디오 설치 풀라주다. 1935년-1941년 일어난 식민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며 작가는 다중성은 어떻게 공간성을 지니는지 묻는다. 아마도 물음은 역사를 이해하는 메타포로 수렴될 것 같다.

제3 전시실은 '겹침소리'를 주제로 구현됐다. 여러 초점을 가진 다중적 세계관에 주목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주인공이다. 프랭크 스키티의 '광주지역' 앞에서도 관람객들이 발길을 머뭇다. 설치물은 광주 곳곳의 쓰레기통에서 채집한 곱방이를 뒤집어 쓴 석고 버섯으로 구성된다. 조각은 광주쓰레기매립장의 폐기물을 압축해 만든 반침대 위에 놓여 있다. 멀리서 보면 철모를 연상시키는 작품은 쓰레기 변화 문제에 대한

의도를 투영했다. 벽면의 사운드 구성물은 버섯이 자라나는 특유의 환경을 환기하는 데 재활용을 넘어 유기적이며 혼종적인 환경을 이야기한다.

권혜원의 '포털의 동굴'은 음향 탐사 도구를 활용해 용암 동굴을 관찰하고 기록한 작품이다. 작가는 동굴 안의 모든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동굴을 지도화한다. 신비로우면서도 이색적인 음향 장치는 제주 전통 무속과 맞물려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처음 소리'로 명명된 제4, 5전시실은 비인간적 세계와 이산화탄소, 바이러스 등이 역사 주제가 되는 분자와 우주를 탐색한다. 포화상태에서 작가들은 세계의 기원을 비롯해 우주 창조로 시야를 넓히려는 의도다.

비앙카 봉지의 '길고 어두운 해일'은 시적이면서도 이색적인 공간으로 관객을 유도해 목적지를 찾

아가게 하는 작품이다. 하얀 소금 사막을 가로 질러 땅 속 깊은 구멍을 발견하는 흥미로운 여정이 펼쳐진다. 끝이 없는 듯한 아득한 구멍은 검은 액체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서 식물이 자란다. 작가의 의도는 관객들을 수동적인 상황에 빠뜨리면서도 조금씩적인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한국 작가 최하늘, 이에인, 전혜주 작가 등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한 용봉동 본 전시관 외에 '소리숲'을 모티브로 양림동에서 펼쳐지는 전시에도 관람객들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31개 파빌리온에도 관람객 맞이 한창이었다. 아세안 파빌리온의 ACC, 오스트리아 파빌리온의 이강하 미술관, 캐나다 파빌리온의 양림미술관, 뉴질랜드 파빌리온의 수하갤러리에도 방문객이 잇따랐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물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소중한 이야기

### 영산강문화관, 물사랑 공모전 수상작 전시... 12월31일까지

케이워터 운영관리(주) 영산강문화관은 K-water 물사랑 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연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전시는 물환경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으며, 물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소중한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90년 시작된 '물사랑 공모전'은 대표 물 공모전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의 소중함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물 만난 우리의 이야기'는 국내 최대 규모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공모전 주제로는 '소양강댐 이야기'를 비롯해 'K-water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등이며 부문은 그림, 사진, 일러스트, 숏폼 영상 등 4개 부문이다. 모두 6162건의 작품이 응모돼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그림 부문 대상 권예원의 '우리 삶의 마중물 소양강댐'은 우리의 삶과 경제발전에도 마중물 역할을 해

온 소양강댐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여러 삶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사진 부문 대상 원형재의 '소양호의 추억'은 전 세대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살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보존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일러스트 부문 대상 '50년간 우리와 함께한 소양강댐, 100년의 미래는 더욱 믿음직스럽게 함께 할 것입니다'는 스마트한 물관리를 매개로 미래 소양강 모습을 제시했고, 숏폼 영상 부문 대상 '삶과 함께하는 물'은 삶의 모든 과정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았다.

사진 및 일러스트 부문 대상에는 환경부 장관상, 그림 및 숏폼 영상 부문 대상에는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금상 이하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이 주어졌다.

이현정 과정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소양강댐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 '물사랑 공모



그림부문 대상 권예원 작 '우리 삶의 마중물 소양강댐'

전'을 통해 소양강댐은 물론 생명의 근원인 물에 대한 소중함과 보존의 중요성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진도 달빛 담은 가야금과 춤의 미학

### 국립남도국악원 '월하금무' 공연... 14일 진악당

바다와 달의 교감이 삶을 이루는 곳 '진도'. 밀물과 썰물의 관계가 생명을 잉태하듯, 전통과 현재가 소리를 주고받으며 무형유산의 맥을 계승한다. 아름다운 가야금과 춤의 어울림을 뜻하는 '월하금무(月下琴舞)'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월하금무'를 오는 14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마련한다. 국립무형유산원 예능공연부 레지던시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오경희와 승무 이수자 김연정 등의 25현 가야금과 춤만주를 만나는 자리다.

영상을 배경으로 가야금과 춤이 만나는 '연(聯)'으로 막을 연다. 이어지는 '우(遇)'는 단절됐던 서풍칠 산조의 가락을 복원한 '13현 가야금산조'와 느린 엄불부터 빠른 당악으로 구성된 '승무'로 채워진다.

즉흥성이 잘 나타나는 휘몰이장단을 25현 가야금 3대와 퍼커션으로 편곡한 '휘몰리 주제에 의한 상상', 한성준이 정리한 입춤 형식의 살풀이 기본춤 '본살풀이'는 주제 '락(樂)'으로 묶인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사)가야금병창보존회 오경희 부이사장

©오경희

끝으로 '합(合)'은 '아리랑 연곡', '태평춤'으로 구성된다. '아리랑 연곡'은 오경희의 가야금 병창과 25현의 협연, 상주아리랑과 밀양, 진도아리랑을 연결한 편곡 버전이다.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한성준의 무속 장단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태평춤'도 볼 수 있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전통무용가 한영숙을 비롯해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고(故) 한성준은 근대 한국춤의 명맥을 이어온 예술가들"이라며 "이들이 정립한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펼치는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무료 공연, 국악원 누리집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전통 재즈, 현대적 감수성으로 재해석

자유분방하고 예측 불허의 음악 '재즈'는 19~20세기 최고 인기를 구가했다. 황금기 재즈의 영광을 현대적 감수성으로 재해석하는 공연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기타리스트 박사원(재즈밴드 M.O.C 대표)이 'Interplay of JAZZ AGES'를 오는 14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연다. M.O.C 박사원을 비롯해 최연우(보컬), 박산돌(피아노), 정세준(베이스), 설진환(드럼)이 출연, 총 일곱 곡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콘트라베이스의 교과서적 아티스트로 평가받는 레이 브라운의 'F.S.R.'로 막을 연다. 그가 소니 롤린스의 'Doxy'라는 곡의 코드에 멜로디를 새로 구성한 번안곡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A La Mode'는 그룹 '빌리 엑스타인 밴드'와 '플래저 핸드슨' 멤버로 활동한 아트 블랙키의 작품이다.

미국의 기타리스트로 제9회, 12회 그래미상 재즈 부문에서 수상한 웨스 몽고메리의 '유닛 7'로

### 기타리스트 박사원 공연 1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재즈밴드 M.O.C가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진행했던 'Get closer to jazz' 공연 장면. <M.O.C 제공>

퍼토리에 있다. 엘라 피츠제럴드의 'Bewitched, Bothered and Bewildered', 칙 코리아의 '파르렛 2번 파트: 존 콜트레인'도 울려 퍼진다.

이밖에 빌리 홀리데이 'Back In Your Own Back Yard', 토니 베넷의 'I Concentrate On You' 등도 기대를 모는 곡들이다.

M.O.C 박사원은 "MCO가 22년부터 차례로 펼

쳐온 기획공연들은 저마다 취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통적 재즈와 현대적 사운드를 결합'한다는 기획 의도는 동일하다"며 "이번 공연이 과거와 현대의 음악을 연결하는 가교가 돼 전통과 현대 재즈 레퍼토리를 즐기는 이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했으면 한다"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프랑스 파리에 광주 공예상품 알린다

### 광주디자인진흥원, '메종&오브제'에 광주공예품... 50여 작품 선보여

파리 '메종&오브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디자인 박람회다. 매년 2500여 개 브랜드가 참가하고 10만 여 명의 전문바이어가 찾을 만큼 인지도가 높다. 전시관 규모만도 13만㎡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이 파리 '메종&오브제'에 광주 공예품을 조성해 30여 종 50여 품목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5일-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노르 발팽트 전시장에서 열리는 '메종&오브제(Maison&Objet Paris)'에 광주 우수 공예문화상품 공예품을 운영 중이다.

이번 박람회 참가는 광주 공예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우수 상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도 메종&오브제에 참가해 100여건의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과 2억

원 상담의 판매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디자인진흥원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더자기 플러스, 소쿠리, 화탁공방, 에이앤즈협동조합, 수다도자기 등 광주지역 5개 공방을 선정, 메종&오브제 참가 준비와 해외 수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노르 발팽트 전시장의 공예 중심부에 36㎡ 규모로 광주 공예품을 조성했다. 이곳에서 도자, 섬유, 목공예 등 30여 종 50여 품목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더자기플러스(대표 정지운)는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병세트 등 6종을, 에이앤즈협동조합(대표 임정하)은 '액막이 명태키링' 등 섬유상품 6종을 출품했다. 이외에도 참여공방들은 개성적인 공예 상품들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